뮤지컬 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지은¹ · 정이루리^{2**}
상계 제일중학교 교사¹ · 국민대학교 교수²

Influences of the Musical-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Charact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o, Jieun¹ · Jeong, Irully^{2**}
Sanggye Jeil Middle School¹ · Kookmin University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musical-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charact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prepare basic data to activate musical programs. 120 students enrolled in an A elementary school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musical-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whereas 120 students in a B elementary school were assigned to a control group who did not participate in a musical-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For data collection, we used the Character Scale for Children developed by Byun(2008), where there are eight sub-categories including sociality, activity, emotional stability, reflectiveness, confidence, independence, aggression, and hyperactiv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higher sociality, activity, confidence, thoughtfulness, and independence than the control group. Through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the musical-based physical activity program has positive effects on characters of these participants.

Key words : Musical-based physical activity, character education, personality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 irjeong@kookmin.ac.kr

I. 서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 중점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과 더불어 인성교육이 새로운 교육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초등교육에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들을 살펴보면 언어 순화 교육 주간 및 행사를 정하여 ‘바른말 고운 말 교육 주간’ 운영, ‘바른말 사용 모범, 언어생활 모범 학생 시상’, ‘언어생활 반성하는 실천 수기 대회’ 등이 있다(교육부, 2012). 또한 일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도덕과의 경우 실질적 정규교과로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어과는 주로 의사소통에서 배려·존중, 말하기·듣기의 책임을, 문학 작품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부분을 전달·회상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과는 역사·지리영역에서 민족성과 정체성을, 일반사회 영역에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과 및 기술 가정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목이며, 특히 가정은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곳이다. 기술영역은 공동 작업을 통해 협력과 협동을 배움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악, 미술 역시 협동 작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은 팀 경기를 통해 경쟁과 협력을, 개인운동을 통해 인내와 끈기를 배우는 과목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이러한 노력은 비교과과정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과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으로 나누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각각 차이는 있지만 모두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강지영, 2013).

이처럼 비교과과정에서 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중 뮤지컬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아주 적합한 종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교육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뮤지컬 수업은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뮤지컬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규아(2010)는 뮤지컬 활동이 사회, 정서 발달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향후 뮤지컬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혜령(2012)은 뮤지컬교육이 학습자의 언어적 측면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지·덕·체를 골고루 겸비한 인간으로 성장토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은영(2011)은 뮤지컬교육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 효과가 있으며 정의적 영역에서의 자신감, 흥미도에서 높아짐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정은지(2014)는 뮤지컬은 다양한 예술이 조화를 이루어진 교육과정으로써 청소년 전인교육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뮤지컬 수업은 스스로 참여·사고·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합해진 이 시대의 창의·인성 교육에 맞는 적합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뮤지컬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사회성,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요인들이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 제시가 미흡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영어·음악교육, 사회성, 정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에 대해 8가지(사회성, 활동성, 자신감, 안정감, 사려성, 독립성, 공격성, 과잉행동) 하위요인을 설정하여, 뮤지컬 수업 경험 여부가 뮤지컬 수업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소재 A초등학교의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6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 당 20명씩 총 120명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뮤지컬 프로그램을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서울소재 B초등학교의 1~6학년 학생 각 20명씩 120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설명을 마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획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변창진(2008)의 아동인성검사를 설문지로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인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 진단하고자 할 때 쓰는 성격설문지이다. 7개의 기술적도는 각각 사회성, 활동성, 자신감, 안정감, 사려성, 독립성, 동조성을 재는 하위요인이고, 3개의 임상적도는 공격성, 과잉행동, 자폐증 증후를 진단하는 하위요인이며 1개의 타당도 척도는 허구척도, 1개의 보조적도는 학습과진/부진의 변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답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하위요인 8개(사회성, 활동성, 자신감, 안정감, 사려성, 독립성, 공격성, 과잉행동)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의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전국에서 표집한 1,769명의 기준조사 대상 중에서 무선적으로 뽑은 남학생 92명과 여학생 345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반분신뢰도를 추정 후, 내적합치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추정했다. 반분신뢰도와 Cronbach' α 를 추정하기 위

표 1. 설문지 구성

요인	세부내용
사회성	특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회성과 비사회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집단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사소통하며 함께 생활하려는 심성 및 행동
활동성	특성의 높낮이에 따라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떠한 일처리나 성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성
안정감	정서가 위기감 없이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이와 반대로 정서가 불안하며 수시로 돌출하는 경우를 불안정감이라 칭함
사려성	충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려성과 충동성의 위치가 결정되는데, 사려성은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며, 충동성은 사려성과는 반대의 의미로 행동을 일으키는 강도가 충동에 지배되어 행동하는 경향
자신감	자아개념의 의미로 해석되며, 자아개념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자기상을 지칭
독립성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성격 특성이며, 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통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독립심이 높다는 것은 책임감도 강하다는 성격이라고 판단
공격성	분노라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음으로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및 사물 등 파괴나 손상처럼 피해를 입히는 공격행동
과잉행동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가 심할 경우 과잉행동장애로 칭함

해 기준조사를 실시한 3개월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추정하였다(변창진, 2008). 초등학생용 인성검사의 하위척도별 Cronbach' α 는 <표 2>와 같다.

이 검사의 사회성, 활동성, 안정감, 사려성의 공인 타당도는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8), 자신감 정원식(1964), 동조성 정원식·김호권(1968), 독립성 변창진(1968)을 외적 준거로 하였다. 임상적도에 있는 공격성, 과잉행동, 자폐증 하위척도는 무반응 점수와 타당도 점수를 외적 준거로 하였다. 이 검사의 공인타당도는 <표 3>과 같다.

표 2. 하위척도별 Cronbach' α 계수

척도	Cronbach' α 계수
사회성	.81 ~ .84
활동성	.82 ~ .85
안정감	.80 ~ .84
사려성	.83 ~ .85
자신감	.80 ~ .81
독립성	.84 ~ .88
공격성	.83 ~ .86
과잉행동	.80 ~ .89

표 3. 하위척도별 공인타당도 계수

척도	공인타당도 계수
사회성	.78 ~ .92
활동성	.74 ~ .92
안정감	.79 ~ .93
사려성	.73 ~ .94
자신감	.73 ~ .95
독립성	.72 ~ .96
공격성	.73 ~ .91
과잉행동	.71 ~ .94

3. 뮤지컬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뮤지컬 프로그램은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며, 일주일에 한번, 1회 당 한 시간씩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뮤지컬을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뮤지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A초등학교 1~6학년 각 20명씩 총 120명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에

표 4.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세부내용
뮤지컬 정의 및 작품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시: 뮤지컬 이론수업 및 동영상 감상 2차시: 대본 읽기, 줄거리 파악하기
배역 정하기 및 배역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시: 배역 정하기 4차시: 상황과 대사 분석하기
노래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차시: 합창곡 배우기 6차시: 장면별 연습
안무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차시: 안무 배우기 8차시: 군무 및 앙상블 감정표현하며 연습하기
연기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0차시: 연기배우기 11~12차시: 장면별 연습 13차시: 전체 장면 연습
리허설 및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차시: 리허설 15차시: 최종 리허설 16차시: 공연발표

배치하였고, 뮤지컬 프로그램을 전혀해보지 않은 B초등학교 1~6학년 각 20명씩 총 120명의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후, 총 240부의 설문지를 현장에서 배부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내용과 설문지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충분히 설명해준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 저학년의 경우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연구자는 현장에서 즉시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240부의 설문지 중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설문지의 응답에 불성실한 답변을 한 4부의 설문지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변창진(2008)의 아동인성검사지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자동채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채점한 백분위 점수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특성에 맞게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채점프로그램에서는 각각 평균 50, 표준편차 10이 되도록 선형 전화시킨 표준점수인 T-점수와 그 백분위를 제시하였고, T-점수는 $T=10(Xi-M)/Sx+50$

으로 소점(X_i)에서 그 하위척도의 평균치(M)을 뺀 편차점수($X_i - M$)를 그 하위척도의 표준편차 (S_x)로 나눈 Z -점수에 평균은 50, 표준편차는 10이 되도록 10을 곱하고 50을 더한 점수이다.

나. 이러한 표준 점수를 SPSS 23.0 프로그램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정상분포곡선 이론을 따르면 T점수의 최고치 80점, 평균치 50점, 최하 20점으로 예로 들어 인성검사에서 받은 사회성의 점수가 80점에 가까울수록 높다, 50점에 가까울수록 보통 혹은 중간, 20점에 가까울수록 낮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8가지 하위요인 T점수의 평균 점수는 약 30점으로, 모든 인성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였다.

다.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 인성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A초등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B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사회성, 활동성, 자신감, 사려성, 독립성은 높은 반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감은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잉행동은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표 5.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인성 차이

구분	참여유무	M	SD	t	p
사회성	유(N=116)	82.57	20.238	-3.839	.000
	무(N=120)	71.09	25.475		
활동성	유(N=116)	69.13	24.032	-3.575	.000
	무(N=120)	57.87	24.350		
자신감	유(N=116)	86.99	19.807	-2.372	.018
	무(N=120)	80.87	19.847		
안정감	유(N=116)	89.15	20.972	-1.916	.057
	무(N=120)	83.39	25.054		
사려성	유(N=116)	28.63	27.161	2.358	.019
	무(N=120)	37.00	27.364		
독립성	유(N=116)	52.20	27.415	-3.229	.001
	무(N=120)	41.08	25.495		
공격성	유(N=116)	39.34	30.027	3.935	.000
	무(N=120)	54.93	30.833		
과잉행동	유(N=116)	39.34	30.447	1.444	.150
	무(N=120)	45.39	33.754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뮤지컬 프로그램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성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사회성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뮤지컬 활동은 지도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배역들 간의 소통 즉, 작품을 완성하기 까지에 있어 모든 뮤지컬 참여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합을 맞추고 함께 작품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며 또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 활동에 참가한 집단이 사회성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김규애(2010)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활동에 참가한 실험집단의 경우 뮤지컬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혜경(2010)의 연구에서도 뮤지컬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성 등 다양한 뮤지컬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은지(2014)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소통의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뮤지컬 활동은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다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화음을 맞추고 연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다함께 노력하려는 과정이 협동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원혜령(2012)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수업 후 실시된 정의적

영역 검사 결과 사회성과 협동심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김은영(2011), 정현주(2011), 민환기(2003), 정현아(2012), 박성수(2015)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라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성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해주고 있어서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가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활동성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활동성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뮤지컬 활동은 학생 자신이 맡은 배역에 감정이입을 하고 또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감정을 표출함과 동시에 의사소통의 전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특히 뮤지컬에서 무용은 학령기 시기의 초등학교생들이 가진 활동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춤의 특정상 신체를 사용하고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신체를 움직이고 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은지(2014)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변화 중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며 의견을 표출한다고 나타났으며, 주로 생활 및 수업에 임하는 태도 변화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수진(2014)의 연구에서도 정의적 영역 중 참여도는 뮤지컬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화(2012)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극화 활동 수업은 흥미도, 참여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원혜령(2012)의 연구에서도 흥미도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향상되었으며, 뮤지컬 수업이 학습자의 흥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났다. 흥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활동·경험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행동경향이고,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는 것이다(두산동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동성은 이러한 흥미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고, 참여는 뮤지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로 의미를 둘 수 있다. 김은영(2011), 민환기(2003), 정현아(2012)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수업을 통해 흥미도가 상승하였으며, 김소희(2016)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나타냈고, 정현주(2011)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참여 집단이 더욱 활동적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가 활동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자신감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자신감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뮤지컬 활동의 완성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므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 뮤지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복된 연습을 통해 자신이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공연의 결과는 자신이 성

공했다는 성취감을 습득함에 따라 자신감이 상승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해경(2010)의 연구에서도 뮤지컬의 효과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나타났다. 김은영(2011)의 연구에서도 실험집단의 경우는 소극적이었던 학생들이 뮤지컬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실험 후 자신감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원혜령(2012)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수업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정영화(2013)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극화 활동 수업은 흥미도, 자신감, 참여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만 아니라 정은지(2014), 민환기(2003), 정현아(2012), 김소희(2016), 박성수(2015)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활동이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안정감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안정감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김규아(2010)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사후 검증 결과 뮤지컬 활동을 통해 안정감이 향상되었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와는 달리 6-7세라는 어린 나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초기에 자기소개와 친목놀이, 조별 활동 놀이를 통해 아동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을 가지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또한 무용 활동에서는 자유롭

게 표현하기와 공간인식을 통하여 움직임과 공간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안정감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안에 녹아 있는 다른 사람과 친목 다지기 놀이와 자신을 표현하고 공간을 인지하는 요소가 안정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박현정(2006)의 연구에서도 무용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승일, 이현경(2012)의 연구에서도 무용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평온하고 건강한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박지나(2001)의 연구에서도 생활무용 프로그램 참여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상태를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으며, 이주화(2012)의 연구에서도 즉흥무용이 유아의 정서 발달 하위요소인 유치원에서의 안정감이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제한된 공간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친구와 함께하기와 같은 요인들이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선행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안정감을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실제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5.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사려성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사려성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뮤지컬 활동에서는 어느 장면에, 어떤 순간에 대사를 실행하는지, 노래를 부르는지, 춤을 추는지 등 주어진 장면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조그마한 오차가 생기게 되면 무대에서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실수가 함께 공연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며, 결국 전체의 뮤지컬 활동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뮤지컬 활동은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활동이다. 이는 은현주(2013)의 연구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참여 유무에 따라 충동성의 하위영역인 운동 충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이 운동충동성향이 높다고 나타났다. 운동충동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거나, 한군데 오래 앉아 있기 힘들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선택과 조절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충동성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뮤지컬과 비슷한 집단 활동 중 리듬합주활동과 무용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보면, 집단 음악 활동에서는 리듬합주활동이 충동성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조절대로 너무 강하게 악기를 치거나 너무 빠르게 연주하지 않고, 집단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을 배제시키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며 타인과 집단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수정, 김인숙, 임명숙(2013)의 연구에서도 브레인 댄스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자기조절력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으며, 자기조절력의 하위변인인 자기통제력, 충동성, 주의집중력을 향상시켰다고 나타났다. 또한 김수미, 이태섭, 최양미(2014)의 연구에서도 춤 감상과 연계한 신체표현활동은 자기조절능력인 자기통제력, 충동성,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사려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6.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독립성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독립성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뮤지컬 활동에서 정해진 배역은 개인의 책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이 맡은 배역을 잘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환기(2003)와 정현주(2011)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활동은 책임의식을 형성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를 형성하였다고 나타났으며, 박성수(2015)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활동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의 리허설이나 본 공연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 및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나타냈다. 또한 김규아(2010)의 연구에서도 뮤지컬 활동을 통해 교사에 대한 비의존성이 향상되었다고 나타났으며, 이때 비의존성은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뮤지컬과 비슷한 집단 활동 중 창작무용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보면 차수정(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성 발달 중 하위변인인 책임성은 프로그램 이후 집단 간 차이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가 독립성에 유의하다는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으며,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가 독립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7.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공격성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공격성을 비교해본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선행연구 중 문화예술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도 참여 유무에 따라 공격성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으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뮤지컬 활동이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가 합해진 종합예술로서 각 장르의 강점을 모두 수용 가능한 종합적 집단 활동이기 때문이다.

연극에서는 극적 상황에서 배역을 맡음으로써 극의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격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표출하거나 혹은 그러한 역할놀이를 통해 공감하고 느껴보며 적절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는 교육연극이 분노조절 및 공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분노 조절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나타냈다.

뮤지컬에서 음악은 감상과 노래 부르기 뿐만 아니라, 특히 타악기의 연주를 통해서 공격적인 에너지를 악기 연주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뮤지컬에서 무용은 자신과 타인의 공간을 인지하고 함부로 자신과 타인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정서적으로 경계를 하지 않게 되므로,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존중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뮤지컬과 비슷한 집단 활동 중 무용교육의 선행연구를 보면 임혜지(2014)의 연구에서도 정서 안정의 하위영역인 긴장 수준, 공격성, 열등감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차수정(2010)의 연구에서도 무용학습 경험은 부정적인 심리요소 즉, 자신을 표출시키고자하는 심리적 욕구 해소, 정서적 불안, 공포 등을 감소시

키는 정서적 표현효과가 증진된다고 하였으며, 이때 부정적인 심리요소에 공격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앞선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임을 알 수 있었다.

8.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과잉행동의 집단 간 차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과잉행동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평균점수가 낮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의 대부분 아동이 활발한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씩씩하다’, ‘용감하다’고 보는 통념 때문에 과잉행동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가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과잉행동장애는 아니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도 이와 같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신현균, 김진숙, 2000).

과잉행동은 본인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의 집합체이다. 뮤지컬 활동 중 음악 활동에서는 타악기를 치는 활동으로써, 과잉행동 에너지를 올바르게 소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홍화진(1999) 연구에서도 음악활동은 과잉행동의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특히 악기활동이 가미된 음악활동에서 더 높은 주의집중력을 보였다고 나타났다.

무용 활동에서는 신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활동뿐만 아니라, 정해진 박자와 일정한 공간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소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화은(2014)의 연구에서도 무용 활동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인 충동성, 부주의, 과잉행동 증상에서 감소되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는 달리 기존의 연구 대상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평정검사의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 8명과 ADHD 및 운동성 장애를 진단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7명의 실험집단인 소수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는 과잉행동이 없었던 학생들로 연구를 하여 사전에 ADHD에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화은(2014)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불안을 감소시키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반응을 지연시키도록 하고, 친구를 통한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잉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요소가 없었으며, 또한 단기간에 뮤지컬 활동을 통해서 과잉행동이 줄어들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집중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집중력이 고학년 보다 낮으며, 본 연구가 A, B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저학년의 결과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잉행동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 뮤지컬 활동이 과잉행동에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정명원, 2009). 만약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였다면 본 연구결과와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증이 어려우나 추후 연령을 세분화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뮤지컬을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뮤지컬 프로그램을 전혀 경험해 보

지 않은 통제집단 간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뮤지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사려성이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독립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뮤지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론을 토대로 뮤지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저학년은 주의집중력이 부족하다는 특성과 고학년은 사춘기를 겪는 시기라는 특성 등 학년마다 다른 정서와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여 양적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였다. 양적연구와 함께 질적연구도 함께 진행하여 실험집단의 심층면담을 포함한 더욱 풍부한 결론을 도출해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무용과 뮤지컬 프로그램은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도 요소의 차이에 따라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 프로그램 안에 성별, 나이와 같은 특정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지영(2013).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201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 교육 강화 방안 연구**.
- 김규아(2010). **뮤지컬 활동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연구-유아 대상 뮤지컬 특기 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김소희(2016). **뮤지컬 교육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수미, 이태섭, 최양미(2014). 춤 감상과 연계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 21(1)**, 357-379.
- 김수정, 김인숙, 임명숙(2013). 브레인댄스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자기 조절력과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학회, 9(3)**, 91-111.
- 김승일, 이현경(2012). 실버타운 한국무용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복한 노년: 사례연구. **대한무용학회, 70(2)**, 39-55.
- 김은영(2011). **영어뮤지컬 공연과업이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및 정의적영역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두산동아편집국(2005).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민환기(2003).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위한 뮤지컬의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수(2015). **교육뮤지컬 프로그램이 위기 청소년 인성에 끼치는 영향 : 경상남도 위탁 교육기관 범속학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나(2001). **중년여성의 생활무용 참여에 따른 심**

- 리적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정(2006). **청소년의 주말 무용프로그램 참여동기가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창진(2008). **아동인성검사.** 서울: 마인드프레스.
- 신현균, 김진숙(2000).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서울: 학지사.
- 원혜령(2012). **뮤지컬을 통한 영어교육이 초등학생의 언어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 2, 3학년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은현주(2013).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주화(2012). **시각적·청각적 자극을 활용한 교수매체로서의 즉흥무용이 6~7세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경(2010). **청소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뮤지컬교육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 임혜지(2014). **초등학교 무용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화은(2014). **ADHD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탈춤을 활용한 자기조절능력 향상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정명원(2009). **ADHD 아동의 치료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ADHD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영화(2013). **뮤지컬 극화를 통한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은지(2014). **뮤지컬 교육의 전인적 효과에 대한 연구-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 정현아(2012). **영어 뮤지컬의 교육적 기능과 효용성에 대한 연구 : 영어 뮤지컬 교육기관 ‘헬레나즈’의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현주(2011). **부산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뮤지컬 춤의 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수정(2010). **창작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표현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예술학회, 29(1), 139-159.**
- 최수진(2014). **영어뮤지컬 수업을 통한 유아영어 학습의 효과 연구: 7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TESOL대학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 홍화진(1999). **음악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주증상 감소 및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논문투고일 : 2021. 04. 30.

심사일 : 2021. 05. 18.

게재확정일 : 2021. 06. 14.